

# 해수부, 섬 주민 여객선 항로 단절 막는다

-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(준공영제 확대) 지원사업 대상에 12개 항로 선정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(준공영제 확대) 지원사업 대상항로로 12개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.

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고,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섬 주민의 항로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.

2024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에는 총 16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하였고, 학계, 연구기관,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▲1일 생활권 구축 항로\*에 백령-인천, 가거-목포, 인천-이작 항로를, ▲연속 적자항로\*\*에 여수-함구미, 목포-상태서리, 통영-당금, 대부-이작, 통영-용초, 통영-육지, 목포-외달, 여수-연도, 저구-소매물도 등 총 12개 항로를 선정하였다.

\* 도서-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

\*\* 적자가 지속되어 단절될 우려가 있는 항로

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하여 국가가 50%,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%를 지원하며, 적자항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%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내년 상반기 중간 정산을 거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항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연안여객선 준공영 항로 확대로 섬 주민들은 육지로 당일 왕복이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,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항로 단절의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도경식 (044-200-5730)
	연안해운과	담당자	사무관	한정수 (044-200-5731)

**1일생활권 항로**

항로	선사명	선박명	기항지
백령-인천	고려고속훼리(주)	코리아프린세스	소청도, 대청도, 백령도
가거-목포	(주)남해고속	뉴퀸	가거도, 만재도
인천-이작	고려고속훼리(주)	코리아피스	자월도, 승봉도, 대이작도, 소이작도

**연속적자 항로**

항로	선사명	선박명	기항지
여수-함구미	(주)신아해운	한려페리9	제도, 개도, 자봉, 송고, 함구미
목포-상태서리	남신안농협	남신안농협2	장산도, 하의도(옥도, 장병도 포함)
통영-당금	(주)한솔해운	한솔2, 한솔3	한산도, 비진내항, 비진외항, 소매물도, 대항, 당금
대부-이작	(유)대부해운	대부아일랜드	승봉도, 대이작도, 소이작도
통영-용초	한산농협	한산농협카페리2	한산도, 용초, 호두, 죽도, 좌도, 비산, 화도
통영-욕지	(주)대일해운	가자바다로, 욕지호	연화도, 우도, 욕지도
목포-외달	(유)신진해운	슬로아일랜드	달리도, 장좌도, 울도, 외달도
여수-연도	(유)한림해운	금오고속페리	여천, 유송, 우학, 안도, 서고지, 역포, 연도
저구-소매물도	매물도해운(주)	매물도구경1	대매물도, 소매물도

\* 항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내 정보-여객선 운항정보 항로조회에서 상세확인 가능

[https://www.komsa.or.kr/kor/sub03\\_020301.do?sessionId=2EAA7CF2CAD9D4969E58ACB36C151563](https://www.komsa.or.kr/kor/sub03_020301.do?sessionId=2EAA7CF2CAD9D4969E58ACB36C151563)